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 KISA, APEC 회원국내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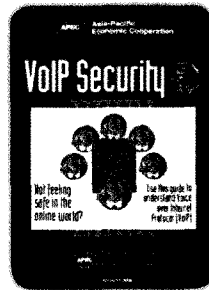
: 호주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VoIP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호주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 이용자를 위한 '인터넷전화(VoIP)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아·태지역 VoIP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APEC TEL 33차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미국과 말레이시아가 지원해 진행된 프로젝트. 이후 한국과 호주가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지난 10월 12일~17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38차 회의에서 프로젝트 종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 및 개인이용자를 대상으로 VoIP 서비스 구축방법 및 고려사항, 예상되는 보안위협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영어뿐만 아니라, APEC 회원국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일어, 중국어 등 10개국 언어로 번역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해 10월 KISA가 배포한 국내 배포물을 기초해 APEC 회원국들에게 적합하도록 개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IT기반보호단 원유재 단장은 "APEC 각 회원국가들도 VoIP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하게 VoI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VoIP 서비스 보안정책 및 관련 기술을 APEC 회원국에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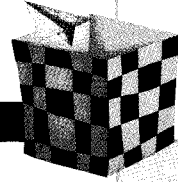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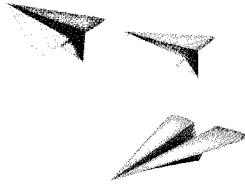
호주판 VoIP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매월 셋째주 화요일, 공부하는 날

: KISA, 직원들을 위한 학습의 날 운영

KISA 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KISA가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학습의 날로 지정하고, 지난 달 21일 제1회 학습의 날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습의 날에는 현장학습 조직 운영, 독서경영, 직무능력 경영대회 등을 연계해 직원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며, 지난 제1회 학습의 날에는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가 초빙돼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자율적으로 다양한 학습팀을 구성해 추진하는 현장 학습조직은 습관적인 업무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학습조직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어 학습효과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혁신기획팀 신대규 팀장은 "학습의 날 행사는 KISA의 인재상인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정보보호 프론티어'의 의미를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학습을 통한 건전한 기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보보호 인력, 수요와 공급이 만나다

: '지식정보보안 인력채용 박람회' 개최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정보보호 관련 학생 600여명과 국내 주요 정보보호 기업 및 유관기관 등 2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식정보보안 인력채용 박람회'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됐다.

정보보호 전공자들에게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정보보호 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KISA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보보호 업체가 참여해 회사소개, 주요 보유기술 및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전공학생들이 실제 전공분야를 현장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또 박람회를 통해 현장 채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접수된 이력서는 KISA의 지식정보보안 인력채용 DB([www.securejob.or.kr](http://www.securejob.or.kr))에 등록돼 향후 정보보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ISA의 한 관계자는 향후에도 채용박람회를 더욱 발전시켜 정보보호 인력과 기업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게 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정보보안 인력채용 박람회 현장

## KISA 노명선·이완석 팀장 시큐어아시아 어워드 수상 영예

: secureAsia@Seoul 컨퍼런스 개최

정보보호 전문가 협회 (ISC)<sup>2</sup>가 주관하는 'secureAsia@Seoul' 컨퍼런스가 지난달 29~30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아셈홀에서 개최됐다.

정보보호의 최신 동향 및 기술을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로 알려져 있는 secureAsia@Seoul의 올해 행사에서는 '신기술 및 규제준수'를 주제로 미국, 유럽, 아태지역의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등장하고 있는 위협과 리스크, 그리고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아·태 지역 정보보호 지도자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데 헌신한 전문가를 선정해 표창하는 시큐어아시아 어워드가 진행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KISA 상황관제팀 노명선 팀장과 u-IT서비스보호팀 이완석 팀장이 'IT 보안 실무자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노명선 팀장



▲ 이완석 팀장